

# 조기영어교육이 7세 아동의 모국어(한국어) 나레이티브에 미치는 영향: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및 어휘사용양상을 중심으로

김유정 · 이선영\*

## Abstract

**Kim, Yoo-Jung & Lee, Sun-Young.** 2015. 9. 30. **The influen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on children's narratives in native language (Korean): focusing on complexity, accuracy, fluency and vocabulary use.** *Bilingual Research* 60, 1-28.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arly English education on children's narratives in L1 Korean. An oral story-telling task was conducted in Korean using a textless picture book "Frog Story" with twenty 7-year-old graduates of English-only kindergarten and another twenty regular Korean kindergarten graduates of the same age. The narrative data from the task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aspects of complexity, accuracy, fluency and vocabulary us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luency, complexity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accuracy; the English-only kindergarten graduates spoke with more errors than the regular Korean kindergarten graduates.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foreign words between the two groups, but not in the use of Sino-Korean words. The English-only kindergarten graduates used more foreign words than regular kindergarten graduat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egative effects of early L2 English education on children's L1 narrative is only limited to accuracy, but not to overall aspects of speaking,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based on empirical study for elementary school language teachers as well as parents of the children.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김유정: 제1저자, 이선영: 교신저자.

**【Key words】** Early English education(조기영어교육), early bilinguals(조기이중언어자), bilingual children(이중언어사용아동), Korean(한국어), complexity(복잡성), accuracy(정확성), fluency(유창성), narrative(나레이티브)

## 1. 서론

아동의 제2언어 학습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연구들은 크게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Campbell & Sais, 1995; Diaz, Padilla & Weathersby, 1991; Galambos & Goldin-Meadow, 1990), 그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Wong, 1991a, 1991b; Ricciardelli, 1992) 같이 있어왔다. 주로 긍정적인 주장은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는 상위 언어적 능력이 단일 언어 사용아동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Campbell & Sais, 1995; Diaz, Padilla & Weathersby, 1991).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에 의식적으로 주의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위언어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이다(Galambos & Goldin-Meadow, 1990). 이와는 반대로 조기언어 교육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를 들면, Wong(1991a, 1991b)은 모국어 능력의 저하와 부모와의 의사소통문제까지 초래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중언어사용 유아 중 두 언어 모두 능숙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숙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Ricciardelli, 1992). 특히, 조기언어 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모국어 “발화”에 대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일례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러시아 모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Aneta Pavlenko, 2003)에서는 다양한 형태(대치, 역전이, 약화 등)의 모국어 발화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는 제2언어를 습득이 모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예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동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제2언어로서의 영어 습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함께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모국어(한국어)습득에서의 역 전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조기영어 교육의 형태나 기간에 따른 초등학생의 수준에서의 모국어의 발화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기 영어교육의 정도에 따른 모국어 발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취학중인 만7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일제영어교육(영어유치원)을 받은 학습자와 시간제영어교육(일반유치원)을 받은 학습자의 모국어 발화를 비교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영어교육이 모국어습득 특히 모국어 나레이티브 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 2. 선행연구

### 2.1.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모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모국어인 한국어 발달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은 주로 인지발달과 발음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과 문법적인 발달에 관련하여 나타났다.

먼저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중 언어 교육은 두 부호에 대한 인식, 인지능력을 자극시켜 모국어 발달뿐만 아니라 상위언어, 상위인지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기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노출시기에 관련한 이선아(2010)의 연구에서는 태생학습자와 초기학습자로 나누어 언어발달 측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발화양상을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관찰결과 6세 이전에 영어에 노출되어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의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습득과정에서 모국어

의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정신적 피해나 언어 입력이 부족하여 제2언어 습득이 불가능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기언어교육은 음성 및 조음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성(2005)은 조기영어 교육을 받은 집단이 모국어의 자음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음운변동의 경우 4세 아동 집단은 마찰음 생략, 성문음 생략, 연구개음 전방화, 치조음 동화, 이환음화에서 5세 아동 집단은 마찰음 생략, 성문음 생략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이 조기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변동률이 낮게 나타나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 집단에서 모국어 음운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영어교육의 긍정적 전이를 발견하였다.

이와는 달리 조기영어교육의 모국어에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문법과 어휘 발달 및 정서적 발달에서 나타난다. 먼저, 문법적 발달에 있어서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아동들에게서 비교적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임동선(2001)은 5-7세의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 분석에서 명사의 대치, 용언의 생략 및 첨가 연결 어미 사용의 부정확 ‘으’첨가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격조사의 오류도 발견하였는데, 특히, 주격의 이형태간의 대치, 목적격과 부사격과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수식언의 경우 부사에서만 오류가 발생하고 독립언의 경우 감탄사 모두를 영어로 대치하였다.

또한, 어휘적인 측면에서 김은주(2007)의 이중 언어 사용자의 국어 어휘 능력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어휘력 점수가 일반학교 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서문화(2011)에서는 두 언어권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표현의 차이로 설명하고, 이것이 모국어를 표현할 때도 영어의 영향을 받아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어린 아동에서도 나타나는데,

김형재(2012)의 아동의 발화연구에서는 전일제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유아의 어휘력이 시간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보다 지연이 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7세가 되면 어휘력이 차이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유창성 또한 전일제 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한국어 유창성이 시간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들 보다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기 영어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언어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발견되었다. 김형재(2012)의 연구는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일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보다 긍정적 정서, 사회성발달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보다 전체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문제행동의 내재화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모국어 발달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조기 영어교육은 한편으로는 외국어의 다양한 언어적 자극들이 언어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취학 전 아동의 음운인식, 인지능력을 자극하여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어의 문법적 정확성, 사회언어학적 언어능력 및 어휘력 발달을 늦출 수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모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여러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자 선정,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발견된다. 첫째,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이중 언어 사용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면, 김은주(2010)는 한국의 외국인 학교 중등학생자를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그 안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차는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 중

요한 변인이 되므로 연구대상선정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한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의 자료수집방법에서 아동의 직접적 발화보다는 간접적인 자료수집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EFL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노출시기에 대한 연구인 이선아(2010)는 실험대상을 생후부터 6세 사이 유아의 부모의 기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관찰자의 직접기록이 아닌 부모의 기록일지에 근거하므로 부모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김민진(2012)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유아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초등학교 1학년 유아 14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설문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부모의 설문을 통한 자료는 아동의 언어학적 능력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셋째, 여러 연구의 자료 분석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김은주(2010)에서는 어휘관련 문제에 대한 정답률과 오답률만을 보여주어 실제로 아동의 어휘사용에 있어 구체적인 오류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지 않다. 또한, 이유리(2011)연구에서도 5세~12세의 이중 언어 아동의 발화 말뭉치 분석에서 관계절에 관련된 복합문에 대한 발화만 분석하여 발화전체에 대한 분석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발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달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발화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2. 발화 숙달도 측정: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제2언어 학습자의 말하기 및 쓰기 등의 산출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2언어 습득 분야에서는 크게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ency), 세 가지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예, Skehan 1998; Ellis 2003 2008). 복잡성은 언어행위가 언어 구조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고 다양한지(Ellis 2003)를 나타내며, 정확성은 오류 없이(error-free) 산출하는 정도를 말하고, 유창성은 원어민과 얼마나 비슷한 속도로 산출하는지(Lennon, 1990; Ellis 2003)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그 자체로 제2언어 산출형태를 묘사하는 구성체(Construct)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2언어 습득의 숙달도 및 발달 단계를 측정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Housen & Kuiken, 2009).

이 세 가지 개념은 각각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즉, 어떻게 정의되고 또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또한, 무엇과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예를 들면, 측정 방법적인 측면에서 복잡성은 아주 단순히 전체 문장 당 절의 개수라든지(즉, 얼마나 복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성은 전체 문장 당 오류가 없는 문장의 비율, 그리고 유창성은 분(minute)당 분절음의 숫자 또는 휴지(pause)나 반복(repetition) 없는 문장의 비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들과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각 개념 구성체들의 정의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에 대한 논의는 각각이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행하는 과제의 특성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 지 등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예, Robinson 2001; Skehan 2001). 예를 들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이 세 가지 구성체들이 발달하는 양상, 또한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제의 복잡성(인지적으로 쉬운 과제, 복잡한 과제)이나 종류(말하기 또는 쓰기과제) 등에 의해 받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ousen & Kuiken (2009)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화에 대한 언어학적 발달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발화발달 측정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어휘 중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에 대한 노출은 문법 외에도 어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영어에 많은 노출이 된 아동들의 영어바탕의 외래어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 관련하여, 한국어 어휘의 60% 이상이 한자어가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의 한자어 사용이 한국어 어휘발달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발화의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 외에도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어 발화의 발달 양상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한국어 모국어발화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히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일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과 시간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나레이티브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 및 어휘사용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모국어발화에 있어서 유창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의 차이가 있는가?
2.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모국어발화에 있어서 어휘사용양상(외래어와 한자어)에 차이가 있는가?

### 3. 실험

####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총 40명의 평균연령 만7세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며 조기영어 교육 경험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전일제 영어유치원을 다닌 아동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과 일반유치원에서 시간제 조기영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이다. 국어 실력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1학년 2학기 공립초등학교의 기말시험 중 국어시험 점수가 90 점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		전체평균 나이	전체 연구대상자
남	여	남	여	만 7세	40명
10명	10명	10명	10명		
20명		20명			

본 연구의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말 학습자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전일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과 시간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들이 각각의 유치원을 마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년 정도를 보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국어의 발달 형태를 보기 위함이다. 이들이 취학 전에 다닌 영어교육기관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전일제 영어교육을 받은 집단의 아동들은 주로 영어유치원의 영어교육(전일제 조기영어교육)을 평균 2년 이상 받은 학생이다. 영어유치원은 보통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교사가 번갈아 수업을 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어민 교사만이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영어유치원 수업은 40분 단위로 하루에 5 ~ 6 교시 수업을 하고 있고 주 5회 수업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흥미위주의 수업으로 원어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파닉스와 영어 듣기와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타 과목의 수업도 영어와 연계하여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영어유치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김연희(2010) 참고).

이와는 달리 일반유치원의 영어교육(시간제 조기영어교육)은 사립 및 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원중인 모든 연령의 원아로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외부기관의 전문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전체 일반유치원 중 절반이상이 전체유아교육과정과 연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인 외부강사와 한국인 영어 전담교사가 주로 대집단활동으로 실시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수업은 주 4회, 주 2회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회에 20분~30분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파닉스와 알파벳 학습, 영어 듣기와 말하기위주의 수업으로 노래와 율동, 교재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다(일반 유치원의 영어수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용(2012) 참고). 따라서 전일제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시간제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영어에 대한 노출시간 및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 3.2. 연구 도구

### 3.2.1 Frog story 그림책

자발화 유도를 위한 그림으로는 이전 문헌(Berman 1988, Berman & Slobin 1987, 1994)에서 사용되어온 Mereer Mayer의 “Frog, where are you?”란 제목의 글자 없는 그림책을 사용하여 아동의 자발화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자료로서 동일한 내용을 여러 아동에게 이야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3.2.2 사례 면담지

면담지에는 부모 사례 면담지와 교사 사례 면담지를 사용하였다. 부모 면담지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조기유학의 경우 영어사용권에서의 생활과 기간,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영어사용권에서 공공기관(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은 기간, 국내 영어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간과 시기를 조사하고, 아동의 영어습득 환경조건, 말이나 언어문제의 유무, 신체발달의 유무, 행동사회적인 면에서의 문제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교사 면담지는 아동의 학교생활과 국어수준(공립학교에서 같은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말고사 중 국어시험점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 3.3. 연구 절차

아동들은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Frog, where are you?”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아동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꾸며서 말해달라고 하면서 발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그림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국어 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화전에 그림책의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보여 주어 어떻게 이야기를 꾸며서 말 할 것인지 준비할 시간(3분)을 주었다. 아동의 긴장감을 덜어 주기 위하여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아동의 발화는 눈에 띄지 않게 외부 마이크 연결 없이 스마트폰 음성 녹음 앱을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아동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동이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사례 면담지를 통해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아

동들에 한해서 진행하였다. 녹음 시작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아동이 자발적 발화를 시작한 시각부터 발화가 끝나는 시각을 총 발화시간으로 계산하였다. 발화한 내용은 이후 분석을 위하여 모두 전사하였다.

### 3.4. 분석

#### 3.4.1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녹화된 자료는 수집 후 즉시(1~2일 이내)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다음의 발화구분원칙에 따라 전사하였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간투사(샘플자료의 10%이상)나 무의미한 소리, 외워진 자동 구문, 반복된 단어 나 학습자가 실수로 틀렸다고 생각하여 다시 수정해서 시작하기(restart) 이전 발화)는 오류가 아니라 실수로 생각하여 발화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화형태의 발화 자료가 아니라 나레이션 형태의 발화 자료로 담화차원의 오류는 분석하지 않았다. Larsen-freeman(2006)이 발화를 분석한 기준을 근거로하여 학습자의 모국어발화를 유창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창성은 총 발화 시간 당 총 음절 수(의미 없는 음절 수 제외)의 개수로, 의미 없는 음절수를 제외한 의미 있는 음절수를 총 발화시간(초)으로 나눈 결과로 분석하였다. 복잡성은 총 t-unit<sup>2)</sup>에서 절의 비율(종속절, 독립절 모두 포함)로, 총 절의 개수를 총 t-unit의 절 개수로 나눈 결과로 분석하

- 
- 1) 예를 들면 “개구리가 아니 아이랑 강아지가 개구리 잡은 것을 통 안에서 보고 있었어요.” 발화 문장에서 “개구리가 아니” 발화는 오류 후 다시 시작하는 이전 발화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Hunt(1965)가 말하는 minimal terminal unit의 약자. 종속절이나 삽입 절이 포함된 하나의 절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나는 더 조심해야 해 라고 그가 말했다’ 문장은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t-unit이다.

였다. 정확성은 총 t-unit에서 오류 없는 t-unit비율로, 오류 없는 t-unit의 개수를 총 t-unit의 절 개수로 나눈 결과를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창성 = 의미 있는 음절 수 ÷ 총 발화 시간<sup>3)</sup>

복잡성 = 총 절의개수 ÷ 총 t-unit의 절 개수<sup>4)</sup>

정확성 = 오류 없는 문장의 개수 ÷ 총 문장의 개수×100<sup>5)</sup>

### 3.4.2 어휘 사용양상(외래어와 한자어)

어휘의 의미문항은 한자어와 외래어에 관련된 사전적 지식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였다. 어휘는 명사로 한정하였으며, 사용된 총 어휘 당 외래어 표현<sup>6)</sup>비율, 총 어휘 당 한자어 표현<sup>7)</sup>비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복된 어휘는 한 개로 취급하였다.

- 
- 3) 예를 들면, 총 발화시간이 302초이고 의미 있는 음절수가 715개인 경우,  $715 \div 302 = 2.3675\dots$ 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분석결과로 하여 2.36개로 분석하였다.
  - 4) 예를 들면, 종속절과 독립절 모두 포함한 절의 개수가 44개이고 t-unit의 절 개수가 24개인 경우,  $44 \div 24 = 1.83$ 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분석결과로 나타냈다.
  - 5) 예를 들면, 오류 없는 문장의 개수가 21개이고 총 문장의 개수가 23개인 경우,  $21 \div 23 \times 100 = 91.3043\dots$ 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분석결과로 하여 91.3%로 분석하였다.
  - 6) 외래어 표현은 예를 들어, 부츠와 고유명사 햄스터, 루돌프 제임스(꼬마이름)는 포함하되 외국어 피피, 빠이빠이는 영어식표현으로 외래어에 포함하지 않았다.
  - 7) 한자어 표현은 예를 들어, 탈출, 관찰, 작별 등 한국어 어휘 중 한자가 포함된 어휘를 모두 포함하였다.

### 3.4.3 모국어 오류유형

학습자의 발화에서 오류유형을 품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품사의 분류는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영어식 표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오류를 선정할 시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참고하고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한국어교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본 연구자 뿐 아니라 학사이상의 한국어 원어민 5명이상이 공통으로 지적한 유형만을 오류로 선정하였다.

## 3.5. 결과

### 3.5.1 유창성(Fluency)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과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의 모국어 발화 중 유창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유창성은 전체 발화시간(초)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음절의 개수를 유창성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다음 <표 2>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유창성 분석결과이다.

<표 2> 유창성

항목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총발화 시간	시간제	20	222.00	59.71
	전일제	20	195.00	42.03
총음절수	시간제	20	554.90	120.91
	전일제	20	527.35	126.99
의미있는 음절수	시간제	20	524.35	105.75
	전일제	20	480.90	122.15
초당 음절수	시간제	20	2.42	0.40
	전일제	20	2.49	0.50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총 발화 시간은 222초(3분 42초)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총 발화 시간 195초(3분 15초)에 비하여 27초 더 발화 시간이 길었다. 또한 총 음절수는 시간제아동이 554.9개로 전일제아동의 527.35개 보다 27.55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길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의미한 음절수는 필요 없는 감탄사, 습관적으로 반복적하는 말, 수정한 말 등을 제외한 음절수로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30.55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41.45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유의미한 발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당 발화음절수를 비교해본 결과,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일초 당 평균 2.42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평균 2.48개를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465$ , two-tailed,  $p = .645$ )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유창성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2 복잡성(Complexity)

복잡성은 총 문장을 기준으로 독립절과 종속절을 모두 포함한 절의 개수를 복잡성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종속절의 경우 주격종속절, 목적격종속절 등 종속절의 유형에 따른 구별은 따로 하지 않았다. 다음 <표 3>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복잡성 분석 결과이다.

&lt;표 3&gt; 복잡성

항목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총 문장 수	시간제	20	24.55	5.41
	전일제	20	22.45	5.10
총 절의 개수	시간제	20	48.55	11.63
	전일제	20	44.05	10.15
총 문장 당 절 개수	시간제	20	2.04	0.65
	전일제	20	2.05	0.60

먼저, 총 문장수를 비교한 결과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평균 24.55개이고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평균 22.45개로 시간제 아동의 총 문장 수가 2.10개 더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 종속절과 독립절 모두 포함한 절의 개수를 비교하였을 때, 시간제 아동은 48.55개, 전일제 아동은 44.05개로 시간제 아동이 4.50개의 절을 더 많이 발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시간제 아동이 전일제 아동에 비하여 더 많은 문장과 절을 이용하여 발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총 문장 당 절의 수를 비교했을 때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한 문장 당 평균 2.04개의 절을 발화하고,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한 문장 당 평균 2.04개의 절을 발화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035$ , two-tailed,  $p = .972$ ). 따라서 두 집단 간 복잡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3 정확성(Accuracy)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과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의 모국어 발화 중 정확성에 관한 분석은 총 문장을 기준으로 오류 없는 문장(error-free)의 개수를 백분율로 정확성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다음 <표

4>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정확성 분석 결과이다.

<표 4> 정확성

항목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총 문장 수	시간제	20	24.55	5.41
	전일제	20	22.45	6.00
오류 없는 문장 수	시간제	20	23.50	4.99
	전일제	20	19.55	5.80
총 문장 당 오류 없는 문장(%)	시간제	20	95.55	0.04
	전일제	20	86.40	0.10

먼저, 오류 없는 문장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23.5개이고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19.55개로 시간제 학습자가 전일제 학습자보다 오류 없는 문장이 더 많다. 총 문장 당 오류 없는 문장을 비교해도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95%의 정확성을 보이고,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86%의 정확성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3.893$ , two-tailed,  $p < .05$ ). 따라서 시간제 조기영어 교육 학습자가 전일제 조기영어교육 학습자보다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발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5.4 어휘사용양상(외래어와 한자어)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과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의 모국어 발화 중 어휘사용양상은 특히 총 어휘에서 나타난 외래어의 개수와 한자어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표 5>는 시간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를 비교한 표이다.

&lt;표 5&gt; 어휘사용양상(외래어와 한자어)

항목	집단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총 어휘수	시간제	20	27.20	7.27
	전일제	20	29.30	6.53
외래어 개수	시간제	20	0.15	0.49
	전일제	20	0.50	0.76
한자어 개수	시간제	20	4.60	1.93
	전일제	20	5.80	2.26
총 어휘 당 외래어 비율(%)	시간제	20	0.39	1.23
	전일제	20	1.61	2.33
총 어휘 당 한자어 비율(%)	시간제	20	17.11	5.17
	전일제	20	19.72	6.21

위의 결과와 같이 외래어 표현에서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총 어휘 당 평균 0.38% 외래어를 발화하였으며,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평균 1.61% 외래어를 발화하여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외래어를 1.23% 더 많이 발화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t$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2.074$ , two-tailed,  $p < .05$ ). 따라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외래어표현을 더 많이 발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자어 표현에서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평균 17.1% 한자어를 발화하였으며,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평균 19.71%의 한자어를 발화하여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2.61% 한자어를 더 많이 발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t$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 = -1.446$ , two-tailed,  $p = .156$ ). 따라서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한자어를 비슷하게 사용하여 발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5.5 오류 유형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과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집단의 모국어 발화 중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첫째, 체언에서 시간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명사나 대명사, 의존명사에서는 오류가 거의 없었으나 전일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명사, 대명사 사용에서, 개수 세는 의존명사의 사용에서 오류를 보였다. 사람을 세는 ‘명’ 의존명사사용의 오류를 보였다.

둘째, 용언에서는 시간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동사 사용에서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전일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동사의 사용에서 오류가 많이 보였다. 동사의 수동형태가 많이 나타났으며 동사의 활용이 부정확하게 나타났다. 동사에 비하여 형용사는 오류는 적게 보였다.

셋째, 시간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주격 조사와 목적어에서 대치오류를 보였고 주격 조사와 부사격 대치오류가 보였으며, 조사생략의 오류가 보였다. 전일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격조사 사용에서 다양한 오류를 보였다. 오류형태 중 조사를 생략하여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주격생략이 가장 많았으며 목적격과 부사격의 대치오류와 주격과 목적격의 대치오류가 많았다. 목적격역시 부사격이나 주격 등 다양한 조사의 형태로 대치하는 등, 격조사의 사용의 오류를 보였다. 조사의 이형태(이/가, 은/는 을/를)의 대치나 관형격, 서술격, 호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수식언의 경우 시간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전일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부사에서만 오류가 발생하였다. 오류 유형은 영어식 의성어로 나타내거나 기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어와 접속부사의 실수도 보였다.

다섯째, 독립언인 경우 시간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나 전일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습자 발화 모두 오류가 거의 없었다.

여섯째, 영어식 표현은 시간제 조기 영어 학습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안녕을 “빠이빠이”로 표현하였고, 영어의 *come, go* 사용과 모국어의 가다, 오다 의 동시 표현이 보였다. 영어의 *of*를 ‘의’로 표현, 복수 단수의 구별등은 영어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볼 수 있었다.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보이는 오류 유형을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영어식표현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시간제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비교

오류 형태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 오류예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 오류예시
체언	명사	없음	- <u>개구라 하고</u> 소리쳤는데 - <u>개구라 하고</u> 외쳤어요.
	대명사	없음	- <u>그게 개구리들이</u> 있었습니다.
	의존 명사	없음	개구리를 한 <u>명</u> 을 가져가구
용언	동사 수동 표현	없음	-사슴 위를 <u>잡혔어요</u> -사슴이 아닌 것을 <u>불잡혔지요</u> -개한테 화내는 거 같이 <u>끌어안기면서</u> -벌에게 <u>쏘임을 당했다고</u> 알렸습니다.
	동사 활용	없음	- <u>불르고</u> 있었어요. -나무를 <u>구들고</u> 있었습니다. -구멍을 <u>볼</u> 때 개가 벌집보고 -남자아이는 그것도 <u>몰른 채</u> 계속 개구리를 찾고
	형용사	없음	-화를 내는 거 <u>같고 있는데</u>
관계언	격조사 오류	-가족개구리들을 아이개구리가 잘 살 것 같았어요. -개구리 한 마리는 아이는 개구리를 안고 갔어요.	-나무 <u>위를</u> 없어서 -아이는 부츠 <u>안에</u> 들여다봤다. -아이랑 <u>강아지를</u> 구멍을 찾았어요. - <u>부영이가</u> 무서워하는 이 아이는

		-동그란 통을 넘어졌어요.	-사슴은 화가 나서 <b>남자아이</b> 에게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사 생략	-낮에 개구리 잡아와서 보고	-그 <b>남자아이</b> 주인인데 주인을 보고 달려갔어요. -개는 <b>그 남자</b> 밖으로 나갈려 해서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b>꼬마랑 강아지</b> 밖으로 나가서 개구리야 라고 말했어요. -그 <b>개구리</b> 한 마리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뚫어진 <b>나무</b> 갈려고 해서 조용히 하라고
수식언	부사 오류	없음	-그런데 올빼미가 <b>깜짝</b> 나와서 -생쥐가 <b>번쩍</b> 나왔다. -남자아이가 <b>얇게</b> 떨어져가지고 -강아지가 보다가 <b>뺑</b> 이렇게 넘어졌어요.
	의성어	없음	-강아지가 “ <b>활활</b> ”하고 짖자 -강아지가 “ <b>윽윽</b> ” 짖자
	부정어	없음	-개구리를 불러도 <b>안 못</b> 찾았어요.
	접속 부사	없음	- <b>그래</b> 못 찾아서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넘어갔어요. - <b>하고</b> 벌은 강아지의 뒤를 쫓아 갔다.
독립언	감탄사 오류	없음	없음
영어 발음 문법 영향	영어를 발음 문법 영향	없음	- <b>빠이빠이</b> 하고 다시 갔어요. -올빼미가 <b>오자</b> 올빼미가 <b>가자</b> -남자아이는 기뻐서 <b>자기들의</b> 가족들에게

오류 유형을 정리해보면,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발화 오류는 조사 생략과 격조사 사용으로 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의 생략은 모국어 습득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장경희&김정선, 2003)이며, 조사 사용의 오류는 5, 6세 및 7세에서 주격, 목적격, 처소격 조사의 오류가 발견(이승환&배소영, 1988)되었다. 따라서 시간제 조기영

어 학습자의 조사오류는 모국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조기영어 교육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 단지 오류가 오래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발화 오류 유형은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등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체언에서는 한국어의 분류사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나 영어는 분류사가 없어 단위명사(마리, 자루, 그루 등)의 표현에서 오류가 보이고 있다. 용언에서는 동사의 수동표현의 오류가 보여 영어의 서술어 수동표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의 서술어의 어미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동사의 어미활용에서 많은 오류를 나타냈다. 관계언에서는 조사 생략이나 대치 등의 많은 오류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조사가 영어에는 없고 한국어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식언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의 사용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같은 부사 표현을 정확히 사용<sup>8)</sup>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한국어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의 사용이 정확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의성어에서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정확히 사용<sup>9)</sup>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영어에서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영어식 표현에서는 수에 관하여 엄격한 영어 표현이 그대로 모국어에 나타나는 오류(예, ‘자기들의 가족들’)와 영어표현과 한국어의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예, 올빼미가 오자, 올빼미가 가자)도 보였다.

8) 예를 들면,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에서 보이는 ‘깜짝 나와서’, ‘번쩍 나왔다.’ 표현을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불쑥 튀어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9) 예를 들면,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에서 보이는 ‘강아지가 활활하고 짖자’, ‘강아지가 월월 짖자’ 의성어 표현을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는 ‘강아지는 빌한테 멍멍 짖었습니다’ 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영어교육 학습의 기간이 길수록 품사 사용에서 오류가 많이 보이고 오류 유형은 영어습득에서 오는 역전이가 보였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조기영어교육이 모국어인 한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7세 아동의 나레이티브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 그리고 어휘사용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일제 조기영어 교육을 받은 아동그룹과 시간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그룹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두 그룹의 발화에는 유창성과 복잡성에서는 차이나 나지 않았으나 정확성에서는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더 정확하게 모국어를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사용양상에서도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외래어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발화하며, 한자어표현은 비슷하게 발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의 모국어 발화오류에는 다양한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체언에서 명사나 의존명사의 부정확한 사용, 용언에서의 부정확한 동사 활용 등이 나타났고, 특히 조사 사용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또한 의성어사용에서 영어식 사용형태가 보여 영어와 모국어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EFL환경에서 영어조기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강호영, 2004; 심순희, 2006; 김은주, 2007; 김형재, 2012; 김민진, 2012)을 뒷받침한다. 특히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시기가 동일하지만 조기영어 학습 시간이 길수록, 영어에만 노출된 교육형태일수록 모국어 발화 시 많은 오류가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예, 임동선, 2001; 서문화, 2012)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또한 유창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김형재(2012)의 연구에서 발견

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즉 위의 연구에서는 전일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유창성이 시간제 영어교육을 받은 아동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김형재(2012)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유창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유창성은 보다 직접적인 발화능력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집단의 발화 유창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조기영어교육을 더 많이 받고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된 환경의 형태에서의 조기영어교육의 경험이 모국어 발화 시 오류를 많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 유형은 영어에서 보이는 언어의 특징이 모국어에서도 보이는 것을 통하여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모국어를 유창하게 발화하는 능력과 문장사용에 있어 복잡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어휘사용양상에 있어서 한국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 발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조기영어교육이 한자어 습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보다 외래어 사용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어휘 사용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어휘의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그룹의 타입 대 토큰 비율(TTR)이나 D값(어휘의 다양성 측정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시사하며 모국어 습득에 있어 제2언어의 간섭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모국어 교육에 있어 정확한 명사의 사용, 용언의 활용지도, 부사의 올바른 사용지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국어 발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외국어 습득으로 인한 간섭으로 생긴 오류 교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조기영어교육이 모국어인 한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조기영어교육은 아동의 한국어 발화에 있어서 유창성이나 복잡성보다는 정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어휘적 측면에서는 한자어 보다는 외래어 사용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조기영어 학습자가 시간제 조기영어 학습자보다 모국어 발화 시 오류를 더 많이 보이는 하지만 문장의 복잡성의 발달이나 유창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화의 전체적인 측면에 나타난다고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들이 추후 주로 한국에 거주하며 모국어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오류가 수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일례로 위의 김형재(2012)의 연구에서는 5세 때의 어휘력의 차이가 7세 때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기영어교육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할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장점을 추구하고, 언어적인 발달에서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모국어의 오류 형태를 지각하여 모국어지도 시 좀 더 명확한 교사의 설명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 시 모국어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국어와의 대조를 보이는 규칙을 설명할 때는 모국어의 규칙도 더불어 설명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들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후 모국어발화가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조기영어교육의 영향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모국어의 형태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영어교육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국어의 오류형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오류 유형에 따른 좀 더 효과적인 모국어, 제2언어 교육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호영. (2004). 영어 글쓰기에 있어서 모국어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진. (2012). 조기영어교육경험이 유아의 사회언어학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유아교육학회. 제16권 제5호, 459쪽~486쪽.
- 김연희. (2010). 영어유치원과 한국어유치원 7세 유아의 영어 학습 흥미도 분석 및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기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0). 이중 언어 사용자의 국어 어휘 능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장규. (2011). 초등학생의 영어 발화분석을 통한 원어민 보조교사 협력수업 개선 방안.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성. (2005.) 조기 영어교육이 4~5세 아동의 음운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재. (2012).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두분. (1990).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서문화. (2012).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와 어휘표현의 차이. 충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세나. (2007).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순희. (2006). EFL 상황에서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종기, 송경안. (2011). 한국어-영어 품사의 유형론적 비교연구. <대한언어학>, 대한언어학회. 제19권 제3호, 213쪽~232쪽.
- 양심미. (2006.) 조기영어교육이 초등학교 정규영어 학습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아. (2010). EFL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노출시기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환, 배소영. (1988). 『한국아동의 조사이해 발달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이완기. (1996).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65쪽~270쪽.
- 이유리. (2011). 한국어와 영어 사용 아동의 PMC (Post/Pre Modifying Clauscs)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로. (2002). 조기영어교육의 배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선. (2001).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희, 김정선. (2003). 유아의 요구 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단계.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4권 2호, 327쪽~360쪽.
- 조선용. (2012). 유치원 영어교육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홍섭. (2003). 번역과 오류교정. <영어영문학연구>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 Berman, R. A. (1988). On the ability to relate events in narrative. *Discourse Processes* 11: 469-497.
- Berman, R. A. & D.L. Slobin. (1987). Five ways of learning how to talk about events: A crosslinguistic study of children's narratives. *Berkeley Cognitive Science Report No. 46*. Institute of Cognitiv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usen, A. & Kuiken, F. (2009). 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30: 461-473.
- Kim, Y. J., Lee, S. Y. & Baik, J. (2013) Cognitive correlates of second language production ability in SLA: Evidence from second language Korean Learners. A paper presented at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Brigham Young University, Oct. 31 - Nov. 2.
- Larsen-freeman. D. (2006). The Emergence of Complexity, Fluency, and Accuracy in the Oral and Written Production of Five Chinese Learners of English. *Applied Linguistics* 27: 590-619.
- Lennon, P. (1990). Investigating fluency in EFL: A quantitative approach. *Language Learning* 40:387-417.

- Robinson, M. A. (1992). Introspective methodology in interlanguage pragmatics research In G. Kasper (ed): *Pragmatics of Japanese as Native and Target Language(Tech. Rep. No 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Curriculum.
- Robinson, P. (2001). 'Task complexity, task difficulty, and task production: exploring interactions in a componential framework.' *Applied Linguistics* 22: 27-57.
- Schmidt, R. (1983). Interaction, acculturation and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N. Wolfson & E. Judd(eds.): *Sociolinguistic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137-74.
- Skehan, P.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Skehan, P. (2001). 'Tasks and language performance' in Bygate M., P. Skehan and M. Swain (eds.): *Research Pedagogic Tasks: Second Language Learning, Teaching, and Testing*. London: Longman.
- Skehan, P. (2003). Task based instruction. *Language Teaching* 36: 1-14.
- Walters, J. (1980). Grammar, meaning, and sociological appropriatenes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Revue Canadienne de Psychologie*. 34: 337-45.

김유정(Kim, Yoo-Jung)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전화번호: 02-2173-2367  
전자우편: jjjk73@naver.com

이선영(Lee, Sun-Young)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전화번호: 02-2173-2367  
전자우편: alohasylee@cufs.ac.kr

접수일자: 2015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9월 18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1일